

만개한 연꽃·물놀이·K팝… 초여름 낭만 팡팡 터지네

무안연꽃축제, 26~29일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개최

트로트 개막 공연·EDM 파티·물대포·포토존 등 다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무안 대표 축제인 제28회 무안연꽃축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열린다.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란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기획·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초여름의 낭만을 느끼고 싶은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박지현과 에녹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7일에는 한동근, 순순희, 엔본의 일이 출연하는 ‘썸온(SUM:ON) 콘서트’ ▲28일에는 구창모, 홍서범, 조갑경이 함께하는 ‘대학가 요제 리턴즈’와 싸이버거의 ‘댄스 투나잇’ ▲29일에는 청춘마이크와 박군·강혜연·요요미가 함께하는 ‘태곤노래자랑’이 진행된다.

주말인 28일과 29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는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특설무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워터밤 파티 ‘워터락(樂) 페스티벌’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실력을 겸비한 DJ와 댄스팀이 함께하는 EDM 파티와 레크레이션 사회자의 신나는 이벤트, 물대포와 버블건을 활용한 물놀이로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또 태권V·아이언맨·보로로 등 인기 캐릭터 20여종의 유등을 전시한 유등 캐릭터존, 해바라기와 수국 등 여름꽃으로 꾸며진 포토존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일로읍 상권과 연계한 지역상생 프로그램 ‘백련마실’도 운영돼 백련문화센터 및 카페 10여 개소에서 문화·체험·판매 프로그램 즐기며 이벤트를 통해 일로 카페 투어 할인권(20%)을 받을 수 있다.

27일과 28일 밤 8시부터는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청사초롱을 들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생태탐방로를 산책하는 ‘여름밤 연빛달빛야행(夜行)’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축제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무안여행 인증샷’ 이벤트와 ‘맛플무안 SNS인증’ 이벤트, 한우 육포 나눔 행사, 우리 한돈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연차 시음 및 행다 시연, 연꽃 족욕 체험, 신비의 연꽃 보트탐사, 황토맨발길 걷기, 제17회 황토골 무안요리 경연대회, 어린이 독서 골든벨 대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열리는 만큼 연꽃을 대신할 다채로운 볼거리·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군민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e-모빌리티 수출’ 인도네시아 현지 공략

장세일 군수 등 방문단 24~27일 일정…수출상담회 등 진행

영광군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략에 나섰다.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간편 이동 수단을 뜻한다.

매년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장세일 영광군수를 단장으로 한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개척단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개척단은 발리정부, 기안야르시(市)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국외 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e-모빌리티 시장 탈출구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나 KIND(해외인프라 투자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 수출 물조를 트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개척단은 25일 오전에 발리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후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기이륜차 기업과 전남 e-모빌리티 A/S·협력 지원 사

무소인 ‘조인트벤처’를 방문해 현지 시장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6일 오전에는 기안야르시와 e-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실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후에는 수가와티데사(인도네시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27일은 현지에서 ‘전남 e-모빌리티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정체인 국내 e-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력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현지 유관기관과 수출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청사 앞 방치된 땅 ‘녹색 힐링공간’ 변신

소공원 조성 관람석 등 설치

진도군이 청사 앞에 방치됐었던 유휴지를 최근 자연 친화적인 녹색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군민들에게 개방했다.

기존 유휴지는 콘크리트 바닥과 계단만 설치된 단조로운 구조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이번 소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휴식 공간에는 ▲원형 정원과 안개분수 ▲계절감 있는 화초류·관목 식재 화단 ▲다채로운 열대풍 화분과 화사한 관람석(스탠드 계단) 등이 설치됐다.

특히 안개분수는 여름철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온 완화 효과와 더불어 시각적 청량감을 제공하는 등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단에는 루드베키아, 수국, 소철, 난전, 황금사철, 루피너스 등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가 식재돼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호파석으로 조성된 관람석은 입체적인 경관과 이용자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단순한 공간이 군민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공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의



진도군 청사 앞에 조성한 자연 친화적인 녹색 휴게공간.

〈진도군 제공〉

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하며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고대악기 ‘마한금’의 울림

영암군, 내일 트로트가요공연장

영암군이 27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 2000년 전 마한금의 울림을 되살리는 ‘달나그리고 In’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고대 악기 ‘마한금’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5, 2008년 각각 국립국악원에서 복원 연주된 ‘세화자’로 공연의 문이 열린다.

16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이 곡은 영암의 갈곡 들소리를 주제로 마한금의 독특한 음색이 관객들을 고대의 정취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마한금과 25현 가야금 2중주의 ‘영보정 풍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1인 창곡 ‘솜아라, 장독섬’,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등이 무대를 장식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해경, 장기계류 선박 화재감지기 설치

완도해경이 장기계류선박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소방서와 함께 완도항 내 장기계류선박 15척에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다음 달 19일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완도항에는 장기간 운행하지 않거나 노후 선박이 묶여 있어 화재 발생 때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11월 완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1척이 침몰하고 1척이 전소됐다. 인근 선박 5척도 타거나 그을렸다.

완도파출소는 장기계류선박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치도를 작성한다.

완도소방서와 협업체 화재감지기를 설치,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김진철 완도파출소장은 “장기계류선박의 경우 선원 부재로 인지가 늦어 대형 화재로 변질 수 있



완도항 내 장기계류선박 15척에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완도해경과 완도소방.

〈완도해경 제공〉

다”라며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연꽃축제가 열리는 회산백련지 풍경.

〈무안군 제공〉

영암군 ‘Y-Share’로 청년 자립 기반 강화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자원 등록 워크숍·나눔 장터 등 추진

영암군청년센터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돼 공유경제 플랫폼 ‘Y-Share’로 청년 자립 기반 강화, 지역활력 제고에 나선다.

Y-Share는 청년 유출,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도 지역자원을 발굴해 지역공동체 회복, 청년 자립 실현 등을 모색한다.

센터는 이 사업으로 ▲공간·물품 등 유류 자원 발굴과 공유 활성화 ▲청년, 지역주민 교류 확대 ▲청년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Y-Share는 자원 등록 워크숍, 공동구매·나눔

장터, 유희공간 활용 실험 프로젝트, 재능 교환 플랫폼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생활물품 공유 공간도 상시 운영돼 방문자들이 자원순환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암군청년협의체는 사업의 기획·실행·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영암문화관광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 모델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상호 협력 논의

8개 기관 간담회…지역별 현안 공유·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전남지역장애인평생교육시설협의회(이하전장평)는 지난 23일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전남지역 8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장애인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이 함께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장평은 앞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안정화 방안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 ▲교육 인력 기준 개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력 배치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 4명당 1명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예준 전장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지역 장애인평생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각 기관의 연대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평은 향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운동을 전개해 정책 제언과 공동 연구,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

무안군, 7월 4일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무안군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7월 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상반기 대비 16명을 증원해 △공공근로사업 9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명 등 총 124명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진로도우미 등 68개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학습과 돌봄도우미, 여성원어민 강사 아동 학습지원 등 15개 사업에 배치된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무안군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무안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7월 25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참여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